# 전주한옥마을 주말 볼거리 · 즐길거리 풍성

## 전주기접놀이 전통연희 퍼레이드, 토요일 오후…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 토요일

연간 1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주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봄철을 맞아 겨우내 중단됐던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와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 등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가 중심이 돼서 펼치는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사회적 기업 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전주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전주기접놀이가 남천교에서 경기전까지 전통퍼레이드로 진행되며, 풍물단, 관광객, 시민들이 누구나 제한 없이 행렬에 참여하여 전주의 문화를 한껏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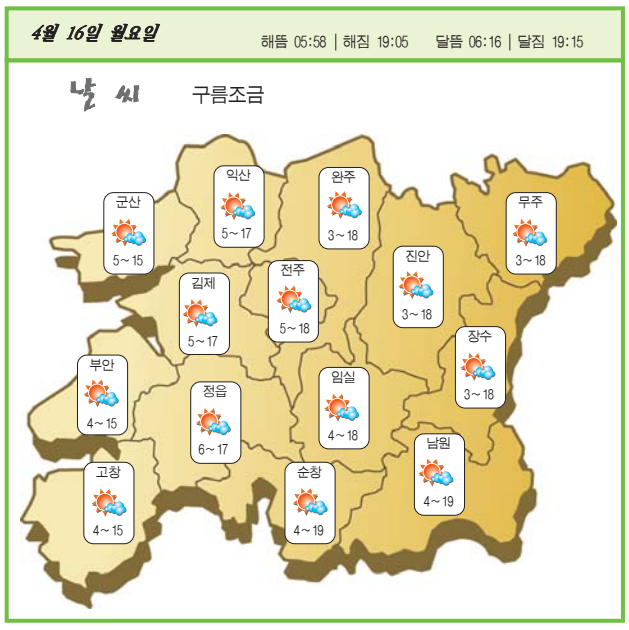
또한, 수백 년부터 구전해 내려온 민요 '만두레소리'와 '달구방아소리', 깃발만들기 체험도 전통연희 퍼레이드에서 체험할 수 있다. 전주기접놀이의 상징인 5m에 달하는 커란 용 깃발이 힘차게 용출하고 휘날리는 가운데 시민, 관광객으로 구성된 풍물단이 농악기와 소고를 들고 풍물 연희를 펼치며 장관을 이루고 한옥마을 거리에서 수천명의 관객과 함께 전주의 구전 만두레소리, 달구방아 소리를 합창하며 전통의 수도 전주의 역사를 즐겁고 장중하게 전달하게 된다.

전주기접놀이가 중심이 돼서 펼치는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다.

특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사자탈과 전주기접놀이의 용깃발의 한판 승부 '용호상박'을 진행해 전통연희의 역동적인 재미와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사)전통문화마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상설프로그램인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을 진행한다.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의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에 대한 고증을 충실히 참고해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와 경기전의 역사적 상징성을 조명하는 문화관광프로그램이다.

경기전 수호책임자인 수문장과 이를 보좌하는 종사관, 경기전문을 수호하는 충의군, 파수병인 기수, 취타군, 대종고를 관리·감독하는 수종장, 경기전 관리책임자인 전직 30명 수문장 일행은 순라행진을 시작으로 취타대 연주와 교대의식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김민근 기자




# '거꾸로 수업' 확대 지원

## 도교육청, 배움학교 14교 선정 · 거꾸로 교실 200개로

전북도교육청은 IT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소통의 구체적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한 거꾸로 수업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전북 교육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 운동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꾸로 수업'은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과 토의·토론 및 협력학습 등 다양한 수업 활동을 통해 전통적 학력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력,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다.

올해에는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거꾸로 수업 문화 조성을 위해 거꾸로 배움 학교 14교를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기존에 지원해오던 거꾸로 교실은 지원 규모를 200개 학급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거꾸로 수업 지원이 수업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제동행의 학교문화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대, 노인 무릎 압박성 기능 의류 개발

## 감지와 산학협력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변주승 교수)은 지난 13일 고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도내 노인들의 질환관절 해소를 위해 ㈜감지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

㈜감지는 2008년 설립된 기능성 스포츠웨어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세계 최초로 실리콘 압착 테이핑 기어를 개발하여 새로운 장르의 기능성 스포츠웨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 산학협력 체결을 통하여 노인 무릎관절 질환을 연구하는 전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박규남 교수의 연구와 특허를 융합하여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압박성 기능 의류를 연구·개발한다.

전주대학교는 2017년 지역혁신지원단을 재구성해 전북도 지역혁신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감지 또한 실리콘 압착 테이핑 기어 출시를 통해 유소년 선수 및 장애인 선수들에게 부상방지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되도록 지원하고, 의료분야 전문의와 MOU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제품으로 인정받는 실리콘 압착 테이핑 제품의 전문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산학협력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활발한 교류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 고령인구의 무릎 등 관절질환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민 기자

# 전북대, 장애 학생 교육복지 지원 '우수'

전북대학교가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대는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17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대학에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348개 대학을 대상으로 선발과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영역을 서면평가, 현장방문, 종합평가 등 3개 과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전북대는 그간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학칙을 신설해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나 선 수강신청 지원,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시행했다.

또한 기숙사생 선발 시 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제도 신설과 장애인용 침실 마련, 최근에는 장애인의 쾌적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해 호평을 받았다. /이상민 기자

# 원광대병원 '한-몽 서울프로젝트' 수행기관 선정

원광대학교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8년 상반기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2018 한-몽 서울프로젝트' 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진흥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팀연수(의사+간호사)를 시작하였으며, 참여기관 중 원광대병원이 유일하게 팀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원광대병원에서는 바트바야르 척락차(남,국립제1병원, 대장항문외과 연수), 겔렉잠츠 르학와더르즈(남, 몽골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연수), 검버수렌 어던치맥(여, 국립제1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팀연수 의사), 푸레브수렌 엥흐델게르(여, 국립제1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팀연수 간호사) 등 4명이 오는 5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연수를 받게 된다.

이로써 2012년부터 한-몽 서울 프로젝트 연수 사업 대상 병원에 꾸준하게 선정되어온 원광대학병원은 2012년 몽골 의료 인력 6명 연수를 시작으로 올해 연수자 4명까지 총 47명의 몽골 의료인들이 연수를 받게 됐다. /익산=장양원 기자